



일본 기독교계의 진단과 바람

이 글은 이나가키 히사카츠(稲垣久和) 교수가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본 기독교계와 기독교학문 현황입니다.

📍 글 이나가키 히사카츠, 번역 성현창

일본의 기독교관련 학회

일본기독교학회는 가톨릭을 포함한 가장 포괄적인 학술단체다. 이 학회는 기독교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1952년에 설립된 공신력 있는 모임으로, 『日本の神學(일본의 신학)』이라는 학회지를 발행하고 있다.

1930년에 창립된 일본종교학회는 일부 기독교인도 참가하고 있지만 불교와 신흥종교 연구자가 대부분이다. 학회지로는 『宗教研究』가 있다.

그리고 비교사상학회는 인도학과 불교학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일본의 비교사상의 개척자이기도 한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1912~1999)를 중심으로 1974년에 설립되었다. 동서양철학의 비교연구를 주로 다루지만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比較思想研究』를 간행하여 연구 성과를 내외적으로 공개한다. 이외에 기독교와 교육관계를 연구하는 기독교교육학회와 기독교와 복지관련 학회인 기독교사회복지학회가 있다.

다음으로 이나가키 히사카츠 교수가 일본의 기독교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가 일본의 기독교계를 진단하는 키워드는 '초월적 권위'와 '종교로서의 공공성'이다. 그는 '초월적 권위'라는 바로미터를 가마쿠라(鎌倉)시대(1185~1333)부터 시작된 민중불교에서 찾았다. 가마쿠라불교의 중심부에 있었던 신란(親鸞, 1173~1262)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한 죄성 깊은 존재다. 믿음을 포함하여 정토왕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 이미 실현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단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철저한 '절대 타성'의 신앙이었다. 이나가키 교수는 정토진종(淨土眞宗)교단 렌노(蓮如, 1415~1499)의 저항권 발언을 부처의 '초월적 권위' 아래 강권적인 지배와의 대립으로 해석했다. 렌노는 "불법(佛法)을 위해서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전(合戰)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1570년부터 11년간 이어진 이시야마(石山)성의 혼간지(本願寺)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 사이의 결전도 권위를 둘러싼 전투적 종교, 곧 정치적인 불자들의 봉기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니치렌(日蓮)계 불수불시파(不受不施派) 시조인 니치오우(日興, 1565~1630)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양심적 저항을 일본 근대사에서 기독교와 함께 순교의 피를 흘린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근대 시기의 일본은 부처라는 절대자가 갖는 '초월적 권위' 및 여기서 발생하는 세속적 권력자의 권위가 부정되었으며, 모든 중생에게 상대화된 평등의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또한 1587년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선교사 추방, 1597년 나가사키(長崎)에서 있었던 26명의 기독교인 책형(磔刑) (십자가형) 이후 심해진 기독교 박해를 '초월적 권위'의 소재 문제에서 찾고 있다..

메이지(明治)시대(1868~1911)가 되면 에도(江戸)시대(1603~1867)에 탄압을 받아온 기독교가 부활한다. 메이지정부에 참여하지 못한 다수의 하급무사는 '새로운 주군'과 '새로운 권위'를 기독교의 하나님에서 발견하였다.

다만 일본 프로테스탄트는 '무사의 에토스와 청교도주의의 결혼'이라 불리듯, 중산계급의 다소 지적인 집단으로 출발했다. 한편 '평민의 복음'으로 유명한 구세군의 아마무로 군베이(山室軍平, 1872~1940)와 빈민가 전도를 한 카가와 도요히코(賀川彦, 1888~1960)의 '구속적 사랑의 사회 실천적 기독교' 등도 배출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천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충돌이 있었다. 소수 기독교인은 천왕의 권위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장하며 순교를 마다않고 신앙적 투쟁을 했지만, 대부분의 주류 교회는 타협했다. 이를 반성하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교회는 국가신도(神道)의 재래와 같은 풍조는 일관되게 견제해왔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며, 세계의 창조자이고 주권자로 자연세계와 세계 역사를 통제한다. 이 '초월적 권위'를 믿는 한, 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권위 안에서만 의미를 알게 된다. 학문도 예외가 아니다. 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반 학문을 연구하여 기독교학문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비전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기독교는 '초월적 권위' 문제를 충분히 고찰하지 않았다. 때문에 창조자이고 주권자이며 구속자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과 역사,

문화와 세계의 존재 의미가 밝혀짐을 신학적으로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넓은 의미의 신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나가키 교수가 주목한 것은 일본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공공적인 의식이 약하다는 사실이었다.

서양사상에서 나타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특징인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교회내의 데아코니아(집사직, 봉사직)를 교회 밖으로 확대해야 하고, 일본에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연신학의 창조'를 제시하면서 이웃 사랑의 실천, 즉 복지문제에 적용하려고 한다. 교회를 형성하거나 기독교 공동체론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말이다. 다시 말해 그의 관심은 자연신학이란 무엇이며, 현대 자유주의 사상과(이데올로기와) 시민사회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면서 이것들을 접목하는 데 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일본 기독교 교회가 시민사회의 중요한 actor의 하나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나가키 교수는 일본 기독교가 민중에게 구제관을 일깨워 준 가마쿠라불교의 영성을 능가할 내용이 없다면 일본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회의 사회참여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 바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다. 공공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에 바탕을 두고 신앙의 공공적 책임성을 현실에서 모색하려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런 맥락에서 이나가키 교수가 주장하는 '자연신학의 창조'와 공공신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다.



성현창 일본 와세다 대학 동양철학전공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와세다 대학 근세유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동 대학 대학원 문학학술원 외국인특별연구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백석 대학교 전임연구교수로 있으며 기독교학문연구회와 아시아교정포럼학회 등의 편집위원과 윤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이학사) 등이 있고, 대표논문으로는 '기독교세계관과 주자학의 비교를 통해서 본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교양교육으로서의 동양철학' 등이 있다.